인쇄하기

인쇄

HOME ð 사설·칼럼 ð 사설

[사설] 전북 의병운동 참가자 800명 신규 발굴

o 새전북 신문 | : 승인 2018.02.25 19:54

> 한말 전북의병사 연구조사 발표회 통해 명단 확인
> 독립유공자 서훈사업·문화콘텐츠 발굴 확장될 듯

전북지역 의병 참가자 800여 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동안 스러져 가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후손들에게 잊혔던 게 아쉬웠다.

이는 광복회 전북지부와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등이 한말 전북 의병들과 그 행적을 조사, 총망라해 책으로 엮은 것이 그 계기다.

광복회 전북도지부는 22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 대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말 전북의병사 연구조사 발표회'를 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조사 사업은 그간 미 번역된 각종 의병 자료와 일본 측 재판 자료 등을 통해 전북지역에서 의병운동에 참가한 이들의 인적 정보를 자료화했다. 이들 두 단체는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각종 의병 자료와 일본 측 재판 기록 등 각종 문헌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에서 의병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정보를 자료화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은 421명의 전북 의병운동 참가자 이외에, 831명에 이르는 새로운 기록을 발굴해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만 의병 1252명이 의병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활발한 의병활동이 벌어진 지역이다. 1908년 후반기부터 1909년 전반기까지 전북지역에서만 무려 492회 일본군과의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1만5,536명의 의병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8년에는 219차례에 걸쳐 9960명의 의병이 나라를 위해 총과 칼을

들었고, 1909년에는 273차례의 교전에서 의병 5576명이 국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에 맞섰다는 조사 결과다. 이들 단체는 한말 전북의병은 다른 곳보다 10여 년이 늦게 시작됐지만, 후기 의병 시기에 눈부신 활동을 하며,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고도 소개했다. 전북의병은 일제에 나라를 잃은 후 국내 비밀결사 운동과 독립의군부, 광복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발견된 의병들은 이름 없이 일본에 맞섰던 민초에서 비로소 후손들에게 알려질 이름을 갖게 돼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전북지역 의병운동 참가자의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추가 독립 유공자 서훈사업과 의병운동관련 문화콘텐츠 발굴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한말 전북의병사가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전북지역 의병역사의 재조명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독립유공자 추가서훈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물론 보훈처 공훈록에 기록된 기존 의병 참가자의 자료 오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새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전북 신문 기자

인쇄